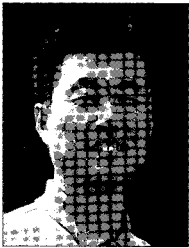


2010년 육계산업 분야별 총정리

2010년 종계 · 부화업 결산



이 상 배 이사
(주)삼화원장

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지고, 또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올 한해는 또 어떻게 지나온 건지, 해마다 일상의 반복처럼 아쉬운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올 한해 종계 · 부화업계에 어떤 이슈와 변화가 있었는지 본고를 통해 돌아보고자 한다.

1. 환율하락과 닭고기 수입 증가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증가로 인하여 1,250원대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회복 부진으로 현재 1,110원선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2011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 경상수지 흑자, 금리인상 등이 그 배경이다.

우리 업계로만 볼 때, 환율하락은 당장 닭고기 수입의 증가를 가져왔다. 2009년 58,000

톤의 닭고기가 수입되었는데 반해 올 10월까지 이미 85,000톤의 닭고기가 수입되었으며 금년 연말까지 아마도 약 100,000톤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대비 약 2배에 달할 것이다. 다만 냉동 비축물량이 465만수(10/10 기준)로 아직까지는 비축여력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한 · EU(유럽연합) FTA

지난 10월 5일 한국과 EU의 FTA가 비준되어 내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 농축산업의 큰 타격이 예상되고, 특히 축산분야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 냉동(가슴살, 날개)과 냉장육 등의 관세가 향후 10~13년 내에 폐지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연평균 218억원, 15년 합계 3,275억원의 생산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브라질로부터 대부분 닭고기가 수입되고는 있지만 FTA 발효 이후 이미 닭고기 소비가 한계상황에 다다른 유럽으로부터 닭다리와 냉동 닭 날개 등의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국내산 닭고기 가격 하락과 수요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 축산업계와 농가들이 체감하는지는 미지수이다.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한국경제 구조상 외국과의 FTA는 불가피하고 실제 계속해서 미국, 중국, 호주 등 많은 국가와 FTA가 논의 중이다.

3. 종계의 생산성 저하

종계의 생산성 저하 문제는 원종계 회사에서 근무하는 필자로서는 솔직히 언급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벌써 2년 넘게 병아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계사의 부적합한 조건이건 사양관리의 문제이건 간에 종계의 생산성 저하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미 지면을 통해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종

계를 사육하기에 계절적으로 환경관리가 매우 어렵다.

또한 유전적으로 종계는 점점 환경에 민감해지고,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장에 따라서는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적인 무더위로 농장에 따라서는 많은 피해를 입었던 올해 여름철은 생산성 저하와 더불어 고가의 병아리 및 닭 값을 유지하는데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최근 필자는 우리나라의 여러 종계군의 성적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 종계의 생산성도 빈익빈부익부의 상황으로 가고 있음을 많이 느낀다. 환경이 적합하게 조절되는 계사에서 적절한 사양관리를 하는 몇몇 농장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생산성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점점 더 생산



2010년 육계산업 분야별 총정리

2010년 종계 · 부화업 결산

성이 악화되는 것을 볼 때 정부에서는 여러 국가와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품질과 상관없이 현재의 종계는 체중이나 수탉 등 모든 부분을 예전보다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즉, 1일령부터 도태시점까지 세밀하고 계획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필자는 물론이고 종계농가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종계 600만수 시대

10월까지 종계 입식수수는 약 560만수로 이미 작년도 입식수수를 넘어섰다. 금년은 종계 600만수 시대가 도래했다. 국민들의 닭고기 소비가 늘어나서 병아리 수요가 증가하고 종계입식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으나 종계의 생산성 저하와 수급안정을 위한 계열사들의 정책 등을 배경으로 실제 수요보다 가수요가 형성되는 면이 계속되는 것이다.

2009년 하반기부터 늘어난 종계 입식수수로 인한 병아리 공급과잉의 우려가 금년의 경기를 자연스럽게(?) 유지해온 것으로 볼 때 2011년의 병아리 생산량은 어떠할까? 예년보다 종계의 입식이 많이 되었으니 많이 생산될 것이다. 거기에 생산성이 회복되어 예상보다

공급이 더 과잉되어도 문제일 것이고 그 반대이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은 아직 13kg에 못 미치며, 30kg가 넘는 북·남미와 다른 일부 국가에 비해 소비신장의 가능성은 많다. 즉, 시장의 발전가능성이 크고 기회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매년 소비자들의 닭고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소비 역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FTA 등 축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지만 업계 종사자들이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600만수대의 종계입식이 시장에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내년의 관심사일 것이다.

5. 경기에 영향을 미친 몇몇 요인들

금년 6월에 시작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이 열렸을 때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열기와 함께 예상을 초월하는 닭고기 소비가 이어졌으며 7월 이후부터 시작된 심각했던 금년 여름의 무더위는 9월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종계의 폐사 및 부화율 하락까지 생산성 저하의 결과를 가져왔고 뒤늦은 태풍으로 양계장이 무너지는 평범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영향으로 사상 최고가의 닭 값과 장기간의 고가 병아리 가격이 형성되었던 한 해로 기억된다.